“스님들 문자 생활, 훈민정음 창제 영향”

영축총림 통도사, 10월 28일 추계학술대회

한글 창제 前 문자생활 상황 분석
차자, 향가 등 훈민정음 창제 토대
스님들 향찰 문자사용 · 이해 탁월
석독구결 문헌 불경서 확인 가능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이전의 백성들의 문자생활이 불교에 영향을 받았고, 이 영향이 훈민정음 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10월 28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통도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사용한 문자에 대해 살펴보고 불교의 경전 연구와 스님들이 사용한 문자가 훈민정음 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연구했다.

학술대회 발표는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가 ‘향찰의 문자-표기론적 고찰’을, 문현수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가 ‘고려시대 화엄경 점토 석독 구결과 유가사지론 점토 석독 구결의 현토 방식 비교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하정수 동국대 교육연구원 연구교수는 ‘고려말 조선초 능엄경 구결의 기입 양상과 계통’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도사는 10월 28일 경내 해장보각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 문자생활과 불교계’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종정 성파 대종사와 주지 현덕 스님, 발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오 교수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사용한 향찰(향가에 사용된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말로 적은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며 “향찰에 대한 다양한 특징을 살펴보면 문자 발달사에 등장하는 방법을 모두 시험해본 문자실험의 장”이라며 “훈민정음이 새롭고 위대한 문자인 것은 분명하나 세종 한 사람의 역량으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700년 가까이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 특히 향가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자 사용 경험들이 한글창제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향찰이라는 문자의 사용자와 문자를 기록 보존한 사람은 불교 승려가 압도적이었다. 실제, 현재 전하는 향가는 모두 26편이며 이 가운데 출 · 재가 수행자를 포함한 불교 대중이 지은 작품이 18편으로 전체 향찰 자료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불교의 사부대중이 향가를 짓고 향찰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고 향가에 대한 그들의 이해와 능숙도가 다른 집단들 보다 뛰어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들이 향찰 표기에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데에는 불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용되었던 구결, 그 중에서도 석독구결과의 관련성을 빼놓고선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문으로 된 불경 텍스트를 어휘부터 문법 형태까지 당시의 우리말로 번역하고 표기하는 방식에 능숙했던 집단이 승려집단이었으므로 다른 직군보다 향찰을 보다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문현수 교수는 석독구결이 대부분 불경에서 확인되는 점을 주목했다. 문 교수는 “구결자와 구결점이 사용된 석독구결 문헌들은 모두 불경이다. 석독구결이 기입된 불경은 대부분 화엄종의 소의경전인 〈화엄경〉이거나 법상종의 소의경전인 〈유가사지론〉”이라며 “구결자와 구결점이 보이는 형태와 소리의 체계성에 대한 인식이 훈민정음의 탄생에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정수 교수는 ‘고려 말 조선 초 능엄경 구결의 기입 양상과 계통’을 발표하며 “능엄경 간행은 언해사업의 전형”이라며 “조선 초기 한글 창제 이후 능엄경을 시작으로 불경 언해 사업에서 고려말 음독 구결 자료가 교량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참석해 훈민정음 창제에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 갈 필요성을 역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오늘 이 자리는 한글 창제에서 불교의 역할을 연구 발표하는 자리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 발표로 그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해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주지 현덕 스님도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을 밝히기 위해 앞으로 지원 후원하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고려 후기 대표 동종 ‘내소사 동종’ 국보된다

문화재청, 10월 31일 지정예고
고려代 특징 확인되는 ‘기준작’
선찰사 석가여래좌상 보물 예고

고려 후기 동종을 대표하는 ‘부안 내소사 동종’ 〈사진〉이 국보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부안 내소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지정예고 하고, 안동 선찰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과 고려 청자, 조선시대 문집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예고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1963년 보물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국보로 승격되는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도인(道人) 허백과 종익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문화재청은 “내소사 동종은 양식, 의장, 주조 등에서 한국범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수조각승 현진을 비롯해 응원, 수연, 성인, 인균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해 1622년(광해군 14) 조성한 불상이다.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장열왕비章烈王妃, 1576~1623)’가 발원하여 왕실의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 · 인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한 11존의 불상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안 내소사 동종’과 보물로 지정 예고된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유산(국보 · 보물)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매듭 연구가 성낙윤 작가, ‘매듭인생’ 회향전

11월 8~14일 종로 KCDF갤러리서
단주 · 108염주 등 200여 점 선봬

“불자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염주를 만들며 기도발원하고, 수행, 기도, 친목, 포교를 생활화 했으면 하는 바람과 현대매듭의 선구자로 전통매듭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매듭을 선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시회를 열게 됐죠.”

한평생 매듭을 연구해온 성낙윤 작가(조계종전국여성불자회 고문)가 매듭인생 마무리를 위한 회향전시를 연다.

성낙윤 작가는 11월 8~14일 서울 종로 KCDF갤러리 2층에서 ‘성낙윤이 만든 매듭’ 특별전을 개최한다. 성낙윤 작가는 전통적인 매듭의 계승은 물론 기존 매듭 형태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해 창조적인 작품을 선보여왔다. 이번 전시에는 2년여 동안 직접 만든 △단주 △108염주 △목걸이 △팔찌 △노리개 등 20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11월 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성낙윤 작가는 “작품을 만들 때마다 ‘천수경’이나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며 수행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번 전시는 우리 매듭의 우수성을 알리는 보급과 전수를 위한 전시인 동시에 불자로서 큰 원력으로 살아온 매듭 인생을 회향하며 전법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낙윤 작가는 전시 판매 수익금 전액을 비구니스님의 노후 복지기금 및 불교인재 양성과 전법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성낙윤 작가는 매듭 보급과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생도 모집, 자신이 한평생 다져온 매듭연구를 전수해 나갈 예정이다.

성낙윤 작가의 전시 개막식은 11월 8일 오후 3시. 02)732-9382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수묵 언어로 펼친 선적 사유의 미학

월전재단, 김대열 작가 초대전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전시


김대열 작가의 ‘보현보살도’

수묵화는 채워져 있으나 채워져 있지 않은 매력이 있다. 그 여백의 미는 선(禪)적이기에 여러 사유를 할 수 있게 해준다.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인 김대열 작가는 수묵화가 가지는 선의 미학을 작품 활동을 통해 투영해왔다.

월전미술문화재단은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벽원 미술관에서 김대열 교수 초대전을 개최한다.

‘김대열 수묵언어-무상(無象) · 유상(有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표작 ‘보현보살도’를 비롯해 김 교수 특유의 선취(禪趣)가 느껴지는 작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실제 김 교수의 작품 주제는 ‘선적(禪的) 사유’ 이자 ‘깨달음’이다. 직관을 통해 얻어지는 이미지를 시각언어로 표출하고 있어서다. 그의 표현방법 역시 빠른 필묵 운용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는 선종화(禪宗畵)나 문인사의화(寫意畵)에서 즐겨 사용하던 감필화(減筆畵) 방식이기도 하다. 대담하고 활달한 운필(運筆)은 형상을 개괄적이고 간략하게 드러내며 색채는 절제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순간에 이뤄지는 붓놀림과 발묵(潑墨) 효과는 선과 면, 구체적 혹은 추상적 형상을 한꺼번에 표출해 내며 선종화의 미학적 특징을 잘 드러낸다.

김 교수는 전시 서문에서 “선과 수묵은 그 이론과 실제에서 상통하며 그 결합은 자아실현의 유력한 표현수단이다. 필묵을 빠르게 휘쇄(揮灑)하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형상에서 오는 미묘한 감정이 바로 선열(禪悅)은 아닐까? 그래서 선과 수묵이 결합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묵화는 객관사실을 그대로 묘사하기보다는 화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적극 반영할 수 있어, 수묵화와 선종은 인간의 자아를 새롭게 이해하고 실현해 가는 과정에서 상보상성(相補相成)의 관계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02)732-3777

신중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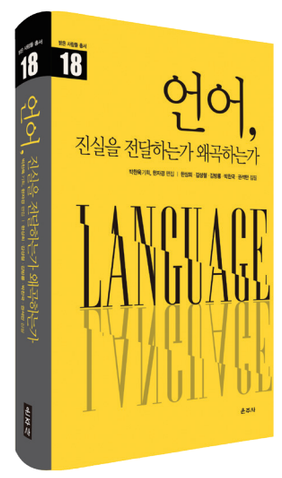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학술연찬회
주제: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일시: 11월 18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인간은 언어를 통해 인식하고 사유하며 의사소통을 한다. 이 책은 불교와 동서양 철학, 심리학에 이르는 다양한 시각으로, 과연 언어는 사물의 본질(진리)을 그대로 보여주고 전하는가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한상희 외 /신국판양장/23,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